

초등학교, 유치원 단지 바로 앞(예정) 학교의 거리는 프리미엄 UP!

PREMIUM _ 학세권(초.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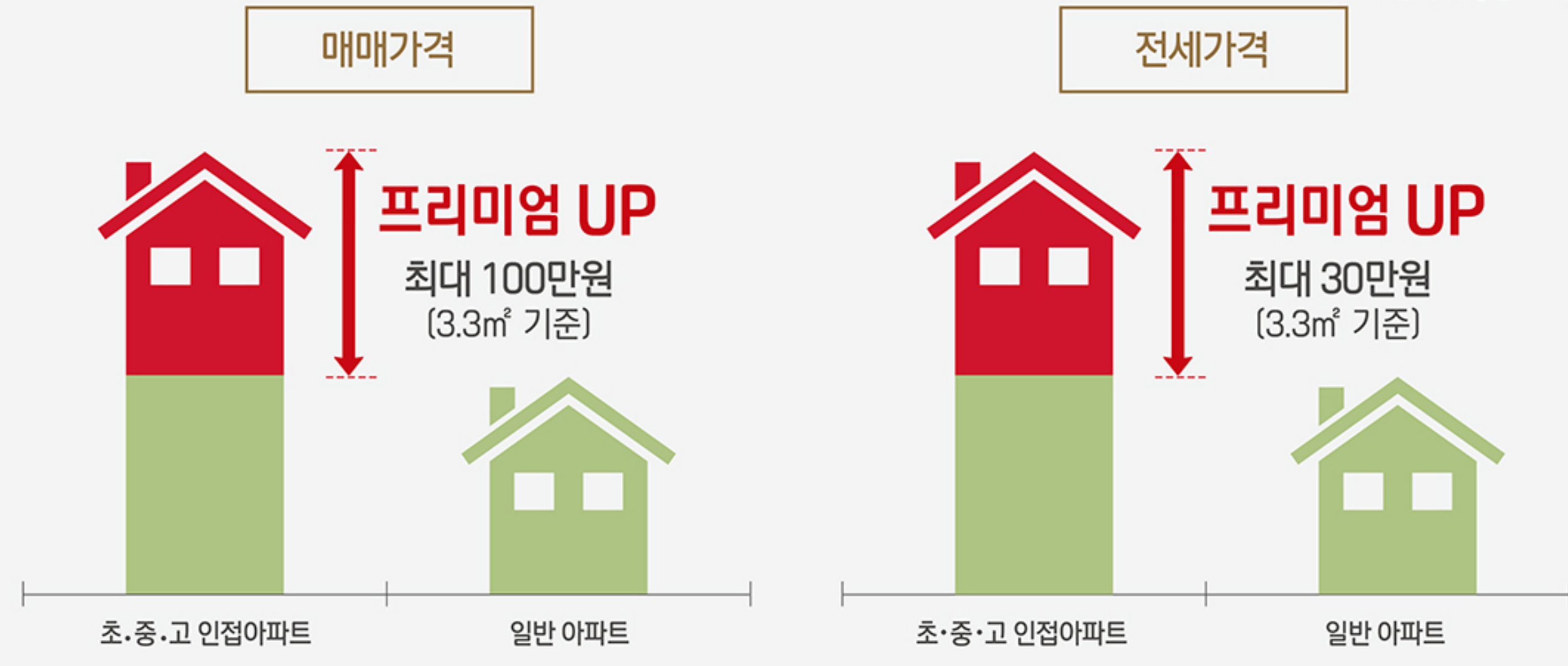
단지 바로 앞 유치원 · 초등학교(예정)

- 01 단지 바로 앞 유치원 · 초등학교(예정)
- 02 유치원 초등학교 프리미엄 UP!
- 03 학세권(초.품.아)의 장점
- 04 초품아 단지가 대세!



학교 인접 프리미엄 형성 사례

[출처: 부동산114]



학세권(초.품.아)의 장점

- ✓ 수요가 풍부해 환금성이 높다
- ✓ 수준 높은 자녀 교육과 통학환경
- ✓ 유해시설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 ✓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



초품아 단지가 대세!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초품아'

Real Cast

2020년 8월 7일

[리얼캐스트 = 김예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행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비교했을 때, 판단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만 6,534건이 발생했고, 276명의 어린이가 인타까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 57.9%인 160명이 보행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가 부동산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초품아 단지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습니다.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센타리'는 바로 옆 예송초와 맞닿아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지난 6월 분양 당시 143.43대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차도를 건널 필요 없이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마자 바로 초등학교로 진입할 수 있어 영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연령별 어린이 보행사망자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35%(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취학아동 34.3%(55명), 유치원생 15.6%(25명), 초등학교 고학년 13%(21명) 순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릴수록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더욱 큰 것이죠.

지난 2월과 5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중흥5블록'과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도 각각 104.34대1, 115.0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두 단지 바로 맞은 편에는 위치한 위례1초는 오는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데요. 위례신도시 내 대표 초품아 단지여서 젊은 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청약 흥행에 성공한 서울 양천구 '호반재밋 목동(128.05대1)'과 서초구 '르엘신반포 파크에비뉴(114.3대1)',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230.73대1)' 등도 초품아 단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초품아 단지가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원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며 도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맞닿은

※ 상기 사용된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각 사업주체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블록과 A4블록은 각각 인허가를 득한 개별 사업장으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